

하이테크 건축 - 투명성과 가변성을 철학으로

- 렌조피아노 · 리차드로저스 · 노만포스터가3대 대가 -

퐁피두센터, (1971 - 77) 파리, 프랑스(렌조피아노+리차드로저스)

퐁피두센터 현상 설계로 널리 알려져

하이테크 건축은 197년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 1937)’와 영국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 1933)’가 프랑스 파리의재개발지구예박물관을짓는 ‘퐁피두센터(Pompidou Center, 파리, 1971-77)’ 현상 설계에 당선이 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이테크 건축’은 말 그대로 하이테크적으로 보이는 건축을 말한다. 다르게말한다면그건물이 어떻게지어졌는가가그대로드러나는건축물이라고할수있다. 얼핏들으면구조주의와비슷하나구조주의가건물이어떻게 세워졌는가를보여주는정도에그쳤다면 하이테크 건축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상수도, 공조와 같은 설비까지도 보여주는 건축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77년 퐁피두센터가 파리에 들어섰을 때파리시민들은공사를하다만듯한모양의 하이테크 건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지금은프랑스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현대 건축물 순위에서당당하게2위의자리를차지하는사랑받는건축물이 되었다. 참고로 1위는 르 코르뷔제의 ‘롱샹성당’이다.

투명성 · 가변성이철학인하이테크건축

33살의 렌조 피아노와 37살의 리차드 로저스는 로저스의 아내였던 ‘수 로저스(Su Rogers)’의 소개로 만나게되었고그녀의 권유로 둘은 퐁피두센터 현상 설계에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에 700개가 넘는 출품작 중에서 이들의 하이테크 작품이 선정되었고 젊은 두 건축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되었다. 하이테크건축의철학은투명성과가변성에 있다. 내부

와외부공간이유리라는투명한건축재료를통해서하나로연결되어지게디자인되어있고, 이재료들은습식공법이아니라건식공법인조립식구조로되어서언제라도 철거나 변형이 손쉽게 되도록 디자인된건축 양식이다. 이들은또한루이스 칸이 주창한 ‘주인 공간(served space)’과 ‘하인공간(servant space)’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기도 한다. ‘퐁피두센터’의 평면을 살펴보면 모든 구조, 설비, 계단실 등은 외부로 분리되어 있고 내부에는 전시 공간만이 널찍하게 배치되어 있다. 스패인넓은트러스구조를사용해서전시공간내에는기둥이없게하여하이테크건축가들이이야기하는공간의가변성을 극대화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건물의입면도에는트러스와텐션구조물들이그대로노출되어있는데이러한 구조체 자체가 아름다운 입면 디자인

③ 현대건축의 흐름

이되고있다. 이러한디자인기법은실은 그리새로운것은아니다.

상하수도까지 배면의 장식으로 노출

프랑스에서는이미 13세기에고딕성당을 건축하면서스테인드글라스창을많이 만들기위해서플라잉버트레스를외부로 노출시키고 내부의 기둥 크기와 수를 줄이는 기술을 만들어 냈었다. 이 방식은 ‘퐁피두센터의 하이테크 기법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본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늘 아래완전히새로운것은없고, 많은것들이 역사 속에서 지혜를 배워서 재창조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예이다. ‘퐁피두센터 에서는 정면도보다 더 흥미로운것이배면인데, 현대건축에복잡하게 들어가있는상하수도및공조설비의모든덕트와파이프등이배면의장식적요소로노출이되어있다. 이때공조는 파란색, 급수관은 녹색, 전기 배관은 노란색, 엘리베이터는빨간색으로페인트를칠하여복잡하지만, 일정한규칙을통

홍콩상하이뱅크, (1979 - 85) 홍콩, (노만포스터.



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불규칙적인 아름다움을연출해냈다.

노만 포스터의 홍콩 상하이뱅크

하이테크 건축을 논하면서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 1935)의 ‘ 홍콩상하이 뱅크(HSBC Bank, 홍콩, 1979 - 85)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이 건물은 6년간 10억달러를들여서건축을했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이었다. 영국에서로드(lord)는작위를받아서 이제는 로드 노만 포스터라고 불리는데, 세명의하이테크대가들중에서사업적인 면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사무실 직원이 600명이 넘는 큰 규모의 사무실을운영하고있다. 몇년전에는사무실 전 직원이 보잉747 한대를 전세내어 프랑스 남부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기도 했다고한다. 참고로 리차드로저스도몇년전로드작위를수여받았다.

‘ 홍콩 상하이 뱅크 는 다리를 만드는 구조적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건축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현수교에서다리상판이두개의포스트에매달려있듯이이건축물의플로어들은몇개 층씩묶여서몇개의큰포스트에매달려있다. 이렇게함으로써 일층 부분을 기둥이 없이 시민에게 오픈할수있게 되었고결과적으로빌딩이들어섬음에도불구하고지상에있는 시민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건물이 있는 대지를통과해서오갈수있게되어있다. 실제로 이렇게 일층을 들어서 지은 이유는 풍수지리에 근거해 홍콩의 혈을 막지 않기위해서그런것인데, 이로인해서실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층의 외부 공간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진입하면서 건물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를 건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일층 천장이 건축물의 정면도가 되는 독특한 형태

를띠고있다고말할수있겠다.

이건물의또하나의특징은빌딩의중간층에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되는 태양 반사판을들수있다. 이반사판은태양의 운행 궤적에 맞추어서 움직이게 되고 빌딩 내부에 있는 반사판을 통해서 건물의 아래층까지 자연 채광을 전달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있다. 이또한앞서설명한외부공간의유입을테크놀러지로성취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하이테크고층 건물을 건축하면서 홍콩 시공자들은 대나무로 만든 비계를 사용했는데, 가벼운 대나무 재료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동, 조립, 분해하는모습을본노만포스터는 그 대나무 비계가 가장 하이테크라고경탄했다는후문이있다.

렌조 피아노의 칸사이 공항

이번에는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일본 오사카시의 국제 공항인 ‘ 칸사이 공항(Kansai Airport, 오사카만, 일본1988 - 94)을살펴보겠다. 아시다시피최근의모든 공항들은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여스팬이 넓은 대합실을 확보하고 유선형의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데, 렌조피아노의 칸사이 공항은 이러한 공항 디자인 트렌드의원조라고할수있다. 일본은당대최고의 건축가들이 지원했던 국제 현상 설계를 통해서 디자이너를 선정했는데, 렌조피아노의작품이당선되어퐁피두센터 이후두번째로대형 현상설계에 당선된 렌조피아노는명실상부한최고건축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칸사이 공항은 기본적으로 간접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인공섬위에만들어진건축물이며, 이섬은중국의만리장성과더불어서우주에서 육안으로볼수있는두개의인공건축물 중 하나이다. 원래의 계획안은 바지선을 이용해서물 위에떠 있는섬을 건설하려